

할렐루야!

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.

주님의 평강이 동부아프리카 선교회와 또한 세계선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세계만방의 동역자님들께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.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다른 때보다 바쁜 일들이 많다보니 정말 세월 가는것을 잊었나 봅니다. 후방에서 보내온 가을소식을 듣고 '아! 가을이 벌써 왔네..' 세월의 빠름을 느꼈습니다.

문득 한국과 미국의 가을의 풍성함이 그리워졌습니다.

하지만 할 일들이 넘쳐나고 그 일들의 목적이 뚜렷한 이곳의 시간들을 나의 마음속 가을이라 느끼며 후방의 그리움을 쫓아버리려 합니다. 10 월 선교소식이 기다려지지요?

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(Living Stone Boys' Seminary)

@ 신입생 모집 소식:

지난 8 월 부터 광고가 나갔던 2014 년도 신입생 모집 입학시험이 지난 19 일에 있었습니다. 120 명 모집에 총 297 명이 지원하여 254 명이 응시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 영어와 수학 성적이 월등(?)한 103 명의 학생들을 최종 합격 시켰고, 20 여명의 학생들은 대기자로 기회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.

그들 모두는 11 월 18 일 부터 2 주간 학교에 머물면서 특별 코스로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우게되며 동시에 그 기간에 내년부터 생활 하게될 학교의 삶을 훈련(?)받게 됩니다. 그리고 2014 년 1 월 11 일에 정식 등록을 하게됩니다. 뿐만 아니라 11 월 중순이 되면 재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됩니다.따라서 신입생들을 위한 준비할 일들과 방학을 맞이하는 재학생들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일들이 주님의 인도 하심속에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.

@ 1, 2 학년들 견학을 위한 여행(Study tour)

1 학년들은 25 일 하루동안 탕가 지역 (공항,동굴, 바닷가)을 다녀왔고, 2 학년들은 1 박 2 일로 학교에서 약 400KM 거리에 있는 Mikumi(미쿠미)라는 국립공원(야외동물 구경)여행을 다녀 왔습니다. 각 학년당 3 대의 미니버스(40 명 정원)를 rent 했습니다.

찬송가와 교가를 부르며 학교로 돌아오던 그들의 소리와 즐거워 하던 모습들 속에서 학교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가슴 뭉클했던 순간들은 나의 남은 평생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. "하나님, 이들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선물들이 되게 하소서"라고 축복했습니다.

@ 건축 소식

재정 문제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도서관 벽쌓기 일이 시작 되었으며, 최명철 선교사님 가정 사택 공사(90%) 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동시에 익명의 후원자께서 후원하여 짓고 있는 윤여환 선교사 가정의 사택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또한 내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사도 이제는 마지막 완공을 위한 주변 정리작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

@ 컴퓨터 실 머릿돌 부착 행사

작년에 와싱턴 한인교회 단기선교 팀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올 1 월에 완공되고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컴퓨터실에 탕가 주 주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기념 머릿돌을 부착해 주셨습니다.

주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에 동참하였고 지방 TV 채널 10 과 Mwana Nch(탄자니아 에서 제일 큰 신문사) 라는 신문사에서 행사 기사를 방송하였습니다. 바쁜 시기라서 좀 힘들기는 하였으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학교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@ 과학관 건축을 위한 준비.

탄자니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각 중고등 학교마다 과학관(실험실)을 지으라는 특별 지시(정부시책)가 내려진 상태입니다. 그런 특별지시가 없었다하여도 지금 2 학년들이 3 학년이 되는 2014 년 부터는 실험교육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믿음으로 기초공사를 시작 하려합니다.

3 년 장기적인 계획속에 매년 1 층씩 건축(그렇게 하면 단계적 필요를 충족 할 수 있음) 할 계획 입니다. 훌륭한 과학교육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또한 이 나라가 속해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 할 것을 믿습니다. 건축경비는 학교제정의 일부와 후방의 동참으로 협력하여 열매 맺게 될것입니다.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 교회 혹은 단체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

@산돌학교 과학관 부지 구입소식

학교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인근 학교(민,관 운영하는 학교)에서 약 10 에이커의 땅을 내놓았습니다. 처음에는 미화 약 \$90,000.00 를 ask 했었지요. 엄두를 못내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최근 이슬람 및 카톨릭학교 등 몇몇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.

그런데 매매를 하는 학교측의 이사들이 의논하기를 이왕이면 발전을 하고 있는 학교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답니다. 그리고 가격도 대폭 인하를

하여 학교 관계자가 직접 박 선교사를 찾아와서 미화로 \$18,000.00 을 ask 하더랍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비해 주신 것처럼 그 학교의 이사진들 중에 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왕이면 바로 옆에 있는 발전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을 모으고 가격도 대폭 인하를 하여 찾아온 것입니다.

박 선교사님께서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구입을 결정하고 이미 부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며 금년 말까지 2/3 를 지불하고 내년에 잔금 1/3 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.

대지 구입경비는 산돌학교의 운영자금중 저축된 자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며 후방에 있는 선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
조만간 늘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가 함께하여 측량 과 서류이전 준비를 하여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합니다. 이런 일들이 여러 이사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신

덕분이라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. 모쪼록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@ 일본에 주문한 미니버스 소식

어제 버스구입관계 서류가 도착하여 찾아왔습니다.

탕가 신학교 소식.

11 월 22 일에 갖게 될 제 13 회 졸업식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일들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다행히 뉴와게(Nyuwage) 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저의 일이 많이 덜어지고 있습니다.

지역교회 건축 헌당 예배

한국의 인천교회의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 헌당예배가 11 월 말에 드러지게 됩니다. 그 교회가 지어진 지역은 탕가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인데 Wadigo(와디고) 라는 99%의 이슬람 교도들인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곳 입니다. 그런지역에 미약하게 보이는 작은 복음의 씨앗을 이미 뿌렸으니 주님 말씀 하신 것 처럼 "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게 될것"을 믿습니다.

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일에 탄자니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모든 분들과 각 교회들을 크게 복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.

함께 나눌 기도제목들.

1. 리빙스톤의 크고 작은 준비의 일들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.
2. 탕가신학교의 졸업(11 월 22 일) 준비를 위하여.
3. 윤여환 선교사 부부, 최명철 선교사 부부, 박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.
4. 각종 건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.